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음 10월 12일) 제19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수단 지원해야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서비스 강화 법률 개정 촉구
황현 도의회 의장 “서비스 대상자 범위 기준 마련 절실 운영비도 지자체 재정여건 상 국비 지원 시급” 강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황현 의장이 제출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건의문’과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강원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해소 촉구(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의 안건을 채택했다.

황 의장은 건의문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시·군·구간 요금체계와 운행 시간, 주말·공휴일 운행방법 등이 달라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

하도록 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대상이 65세 이상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해 현장에서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와 대·폐차 도입 비용도 지자체의 재정여건 상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광역단위 특별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큰 권한을 부여하고 보장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논의와 정부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출범했다. /김진성 기자

靑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초선 의원 출신의 한병도 정무비서관(사진)을 발탁했다. 전병헌 전 수석이 자진 사퇴한지 12일 만이다.



국회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는 자리다. 원만한 성품을 갖춘 한 수석이자 야권과의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적임자라는 주변의 평가가 낙점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한병도 수석은 익산 출신으로 원광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전 수석을 도와 청와대에 입성했다.

한 수석은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에서 정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남원에 도착했다. 남원지역 성화봉송 10번 주자인 김영수(49·경찰공무원)씨가 시민들의 환영 속에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2018 평창올림픽 성화, 전북 도착 남원부터 START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28일 춘향전의 배경인 남원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봉송을 시작했다.

지난 1일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부산을 거쳐 경남, 전남을 달린 성화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체육인, 어르신·장애인 등 420명의 주자와 함께 총 277.7km의 거리를 달린다.

성화봉송단은 첫날 남원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임실(29일), 무주(30일) 등 6개 지역을 방문한다.

전북지역 1일차 일정을 남원에서 시작한 성화봉송단은 지역이 간직한 유·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이색 봉송을 진행했다.

성화봉송단의 불꽃은 판소리를 오

내달 3일까지 임실 등 도내 6개 지역 순회

남원시청·남원고 등 시내 주요지점 달려 시민들에 환영 받아

늘의 민족음악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가왕 송홍록과 중요무형문화재 5호 수궁가 보유자로 선정된 국창 박초월의 생가를 배경으로 봉송을 진행,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인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다.

동양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춘향전의 주 무대이며, 남원을

대표하는 관한루를 배경으로 오작교, 영주각, 완월정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어우러진 이색봉송도 진행됐다.

이날 관한루 봉송에서는 소치올림픽 폐막식에서 대금공연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였던 대금연주자 한충은 씨가 주자로 뛰었다.

정유재란 당시 1만 의사가 최후의 혈전을 벌여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에서는 제46회 전국소년체전 역대 여자중학부 3관왕 이하영 선수가 주자로 함께 했다.

남원에서 성화의 불꽃은 인월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남원시청, 남원고등학교 등 시내 주요 지점을 달리

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성화봉송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6시, 춘향테마파크 사랑의 광장에서는 남원에 도착한 성화를 환영하는 축하행사가 펼쳐졌다.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남원신관사포 부임행차 공연으로 이날 행사의 막이 올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평창의 불꽃을 통해 남원의 수많은 유·무형 문화재를 세계에 알린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지역에서 성화봉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혁신성장 전략회의... 문 대통령, “성장 주체는 국민... 인적 투자 추진하라”

4면 -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 시민들 “주거복지정책 필요”

국립세종문화예술연구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